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충국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인곡동 175-3 인곡빌딩 신관 3층 전화: 723-5300 / 팩스: 723-8055)
천안 호텔 PSPD, 나무누리유포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국제인권센터 담당: 장소영, 차미경: 723-4255, 017-362-1229)
제 목 인도네시아 민주화 촉구 및 폭력진압 중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집회
날 짜 1998. 5. 18. (총 4 쪽)

보 도 자 료

“인니 민주화 촉구 및 폭력진압 중지” 집회 개최 -시민·사회·노동단체 연대 집회-

일시 및 장소: 1998. 5. 18(월) 12:00 여의도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KBS별관 정문 앞

1.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인도네시아 사태에 대해 “인도네시아 민주화 촉구 및 폭력진압 중지 평화시위 보장을 촉구하는 한 시민·사회·노동단체 연대 집회”가 98년 5월 18일(월) 12시, 여의도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KBS별관 정문 앞에서 25여개단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 이날의 집회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인도네시아 민주세력을 지지하는 연대의지를 표명하였다. 집회에서 발표자들은 “32년간의 침묵을 깨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인도네시아인의 투쟁이 민주화로 꽃피어나기를 바란다”는 연대사를 발표하였다. 특히 5·18 광주민중항쟁 18주년을 맞아 그 당시 전세계의 민주적 여론과 시민이 지지와 연대를 보낸 것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라고 참석자들은 얘기했다.
3. 연대집회에서 시민·사회단체는 평화시위보장, 수하르토 퇴진, 폭력적 진압 규탄 및 중지 요구, 민주개혁요구의 전면수용, 한국정부의 인도네시아 독재정권에 대한 경제지원과 협력의 즉각적 중단, 한국기업들의 수하르토 족벌 기업과의 거래와 합작 중단, 국제연합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 동티모르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별첨 1. 성명서 참조)

이날 위험을 무릅쓰고 인도네시아 재한 노동자는 흑두건을 쓰고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발언했으며, 또한 오랫동안 타국에서 인도네시아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동티모르 독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마리아 페드로씨(동티모르 국제 지원 사무국 연락관)는 연설을 통해 한국시민과 아시아인의 연대를 강조했다.

4. 집회 프로그램

1)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추모 묵념

2) 단체별 연대사 발표

박천웅 (외국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정춘숙 (한국여성의 전화, 인권사회위원장)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재한 인도네시아 노동자 발언

동티모르인 연대 발언(마리아 페드로씨, 동티모르 국제 지원 연락관)

3) 성명서 발표 - 참여연대

4) 인도네시아 대사관 항의 서한 전달(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 중 2인)

5) 참여단체 :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국제문제연구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겨레동포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정보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열린사회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동티모르연대모임, 녹색연합, 노동정책연구소,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세기진보학생연합

끝

성명서

제 2의 광주, 자카르타! 되살아나는 민주주의

올해는 5.18 광주민중항쟁 18주년과 유엔 세계인권헌장이 채택된지 50주년을 맞는 때이다. 그러나 지금 기나긴 독재와 폭압에 항거하는 민중들이 총에 맞아야 하는 비통한 역사가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

유엔 세계인권헌장 채택 5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아시아의 땅, 인도네시아에는 인권이 없다. 한국 국민은 잊을 수 없는 동일한 역사적 체험을 통해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치절한지 어느 국민보다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모든 인권옹호 단체 및 민주세력과 더불어 수하르토 정권의 살인적이고 폭력적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시에 인도네시아인들이 염원하는 독재종식이 평화적 방법을 통하여 이룩되기를 바라며 수하르토 정권에 맞선 그들의 투쟁에 전면적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살상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어떻게 죽어나갈 지 모르는 암흑한 상황이다. 수하르토는 현재 개혁과 민주를 요구하는 학생과 민주시민을 폭도로 몰아붙이고 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가 지난 32년간의 1인독재체제, 전대미문의 정경유착, 더러운 부정부패에서 비롯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수하르토는 현 위기의 일차적 원인이 정부의 무능과 부패, 독재정치에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수하르토 정권은 사태에 방관하고 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반민주적이고 비인도적인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독재정치에 억눌려있던 민중들의 분노를 왜곡하기 위해 민중들과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에게 국가위기의 책임을 돌리면서 국민들을 이간질시켜 심각한 종족갈등과 폭력사태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 파렴치한 정치적 계략을 전 세계에 고발한다. 수하르토의 하야는 인도네시아인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의 염원이다.

한국은 올해 광주민중항쟁 18주년을 맞았다. 18년전 광주, 계엄군에 저항하던 시민군이 두 팔이 묶인채로 마치 짐승처럼 끌려갔듯이 오늘 인니민중도 똑같이 죽어가고 있다. 지난 80년 신군부의 광주학살에 맞선 민중의 투쟁에 대해 전세계의 민주적 여론이 지지와 연대를 보냈듯이 오늘 우리도 인니민중의 피어린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을 천명한다. 그리고 경고한다.

지난 32년동안 수하르토와 함께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해온 군부가 정치적 혼란을 이용해 새로운 집권음모를 기도하고 있다면 이를 즉각 중지하라.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의 투쟁이 국민적 단결 정권교체와 인도네시아의 진정한 민주화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와 함께, 부당하게 점령당해온 동티모르의 독립을 촉구한다. 아울러 그동안의 동티모르 인권탄압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휘두른 폭력에 쓰러져간 생명에 대해 수하르토와 그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로지 독재의 종식과 군부의 개입이 일체 배제된 민주적 개혁만이 인도네시아를 위기와 파면에서 구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독재정권의 폭거에 맞서 생명을 걸고 의롭게 싸우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전 지구촌의 민주시민들에게 강력히 호소한다.

우리는 다음 사항을 주장한다.

1. 수하르토는 평화시위 보장하고, 폭력탄압 중단하라.
1. 수하르토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1. 수하르토는 인도네시아사태의 전말을 책임지고, 즉각 퇴진하라.
1. 국제연합은 인도네시아 인권침해를 주목하고, 적극 대처하라.
1. 한국정부는 수하르토 독재정권의 경제원조와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1. 한국기업은 수하르토 족벌과의 모든 거래와 협작을 즉각 중단하라.
1. 동티모르의 독립을 즉각 보장하라.

1998. 5. 18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국제문제연구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겨레동포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정보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열린사회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동티모르연대모임, 녹색연합, 노동정책연구소,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세기진보학생연합

**Solidarity Rally
for Indonesian Democracy**

Declaration

The Second Kwangju Incident--Jakarta! Democracy Reawakened!

This year marks the 18th anniversary of the Kwangju mass uprising as well a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United Nations World Human Rights Charter. Today, however, the sad and brutal history of citizens versus the guns of dictatorship and terror are being relived in Indonesia.

Even as the Asian continent commemorate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World Human Rights Charter today, in Indonesia there is no human rights. Perhaps more than any other people, the Korean people vividly remember through their similar historical experiences the deep and gruesome scars of an all too familiar past. Therefore, we the Korean human rights and democracy movement oppose the murderous and violent Suharto regime. In addition, we hope that the Indonesian people's desires for a peaceful transition to democratic self-governance is realized and we support and are in solidarity with their struggle against the dictatorship of the Suharto regime.

Today in Indonesia, there is rampant bloodshed simply because the people are opposed to the regime. It is a terrifying situation where it is unknown how many more people must lose their lives. At present, Suharto continues to violently oppress students and people who are demanding reform and democracy.

We believe that Indonesia's current crisis stems from: 32 year-old dictatorship, political-economic collusion and cronyism, and systematic government corruption. Suharto must recognize that the prime reasons for the crisis are government corruption and lack of productivity and dictatorial politics, and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step down from power.

The Suharto regime, however, is being blind to reality. This can only be

interpreted to mean that the Indonesian government is antidemocratic and insincere. To quell the people's anger at the oppressive dictatorship, the government is blaming the national crisis on its people and particularly Chinese-Indonesians, in effect dividing the citizenry and bringing about ethnic tensions and violence. We expose this cynical political scheme to the entire world. The end of the Suharto regime is the desire of the Indonesian people, as well as all peaceloving and democracy-seeking peoples.

In Korea, this year marks the 18th anniversary of the Kwangju mass uprising. As in Kwangju 18 years ago, when people forces resisting martial law forces were dragged like animals with hands tied behind their backs, the Indonesian masses are dying in the same way. Just as world democratic public opinion lent support and solidarity with the mass struggle against the Kwangju massacre in 1980, today we give our solidarity with the Indonesian people's continuing struggle until the end. And we warn. If those segments of the military which together with Suharto for the last 32 years has suppressed the people's aspirations for freedom and democracy, seeks to utilize the political chaos to plot a dictatorial conspiracy yet again, stop immediately!

We sincerely hope that the struggle in Indonesia will lead to a transition to people's rule and genuine democracy. Together with Indonesian democracy, we also advocate the independence of the illegally annexed sovereign nation of East Timor. In addition, we demand that Suharto and his relevant associates be punished accordingly for pas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deaths incurred by the Indonesian government on the East Timorese people.

Considering that only the end of the dictatorship and democratic reform completely independent from military involvement will rescue Indonesia from the current political crisis and economic collapse, we strongly appeal to the democratic people of the world that we will support and back the Indonesian people who are risking their lives and fighting the violence of the dictatorial regime.

We call for the following conditions.

1. Suharto guarantees the right to peaceful demonstrations, and end violent oppression.
1. Suharto fully accept the Indonesian peoples' desire for genuine democracy.

1. Suharto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cause of the Indonesian situation, and resign immediately.

1. The world community must observe and systematically deal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in Indonesia.

1. The Korean government immediately cease all Official Development Aid (ODA) for economic investment and cooperation with the Suharto dictatorial regime.

1. Korean companies immediately cease all transactions and ventures with the Suharto clan.

1.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East Timor.

May 18, 1998

- ▶ Association for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 ▶ Association for Open Community
- ▶ Buddhist Academy for Ecological Awakening
- ▶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 ▶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 ▶ Green Korea
- ▶ Institute for Workers' Human Rights and Justice
- ▶ International Politics and Economy Center of Korea (IPECK)
- ▶ Joint Committee of Migrant Workers in Korea (JCMK)
- ▶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WAU)
- ▶ Korea East Timor Solidarity
- ▶ Korea Women's Hotline- (KWHL)
- ▶ Korean Action Network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 ▶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 ▶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KIN)
-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 ▶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and Reunification of Korea (NADUK)
- ▶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PSPD)
- ▶ SARANGBANG Center for Human rights
- ▶ Social Information Networking Group (SING)
- ▶ Women's Community Action Center
- ▶ Association of Progressive Students for 21 Century